

# 공근면(公根面)

## [위 치]

공근면은 동쪽으로 갑천면, 서쪽으로 서원면, 남쪽으로 횡성읍, 북쪽으로 홍천군 동면과 각각 접해 있다.

## [연 혁]

서공근면(西公根面)이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공근면(公根面)으로 고쳐서 가곡리(佳谷里), 공근리(公根里), 덕촌리(德村里), 도곡리(陶谷里), 매곡리(梅谷里), 부창리(富蒼里), 삼배리(三培里), 상동리(上洞里), 수백리(水白里), 어둔리(於屯里), 오산리(梧山里), 창봉리(蒼峰里), 청곡리(淸谷里), 초원리(草院里), 학곡리(鶴谷里), 학담리(鶴潭里), 행정리(杏亭里) 등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 행정관할구역의 재조정으로 홍천군 남면 상창봉리(上蒼峰里)를 편입하고, 학곡리의 일부를 횡성읍에 이관하고 남은 학곡리 지역을 신촌리(新村里)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가곡리(佳谷里)

원래 가전리로 불리다가, 뱀이실, 백아곡(白牙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유장골, 머니고개, 가전리, 배실을 병합하여 백이곡리(白牙谷里)라 하다가, 그 후에 가전과 유장곡의 이름을 따서 가곡리로 고쳤다.

**골말** [골] 배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끼록바우** [바위] 절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 색이 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밭골** [골] 장터 뒤에 있는 골짜기로, 봄이면 꽃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동’이라고도 한다.

**두째골** [골] 절골 안 첫째 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두 번째 있는 골짜기라 붙여

진 이름이다.

**뒷골** [골] 유장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뒷골과 웃뒷골이 있다.

**막장골** [골] 배설에 있는 골짜기로, 막바지에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말등지** [고개] 머니고개에서 절골로 들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머니고개** [마을] 가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머니고개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머니고개** [고개] 벽봉 건너편에 있는 고개로, 고갯 길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몰니현이라고 한다.

**몰니현(沒泥峴)** [고개] → 머니고개

**박석고개** [고개] 아랫말에서 삼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방아재** [고개] 머니고개에서 삼배리로 통하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설** [마을] 가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 뒤에 있는 산이 배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②마을 뒤에 있는 산이 공근리를 안고 있고, 반대로 이 마을은 등지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곡’이라고도 한다.

**배양고개** [고개] → 배웅고개

**배웅고개** [고개] 가곡리와 부창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성동리에 사는 분이 이곳까지 와서 배웅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양고개’, ‘뺨고개’라고도 한다.

**뺨고개** [고개] → 배웅고개

**뺨골** [골] 머니고개 초입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부창리와 통한다.

**벽봉** [산] 머니고개 앞에 있는 산으로, 벽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월까지도 이 골에는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하며, 여름에도 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한다.

**세째골** [골] 두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세 번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선장** [바위] 유장골 앞 냇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말** [마을] 가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고개** [고개] 움무골과 머니고개 사이에 있는 고개로, 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선골** [골] 배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움무골** [골] 배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공근리와 통한다.

**움무골** [마을] 가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웃말** [마을] 장거리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곡(梨谷)** [마을] → 배실

**유장골** [마을] 가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노루가 많았다고 한다.

**장거리** [마을] 가곡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장이 서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이라고도 한다.

**절골** [골] 머니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첫째골** [골]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첫 번째 있는 골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동(花田洞)** [골] → 꽃밭골

## 공근리(公根里)

곰굴이라 하던 것인데, 고려 말 직제학(直提學) 팔계(八溪) 정전(鄭愓)이 살면서 공근(公謹)으로 고쳤으며, 조선 때 공근면(公根面)이 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절골, 별묘, 이문안, 셋말, 봉우재를 병합하여 공근리라 하였다. 공근면과 혼동되므로 ‘내공근’이라고도 한다.

**강자골** [골] → 강제골

**강제골** [골] 절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강자골’이라고도 한다.

**구용골** [골] 절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용골’이라고도 한다.

**국자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가 길고 좁으나 안은 제법 넓어 모양

이 마치 국자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제골’이라고도 한다.

**국제골** [골] → 국자골

**귀용골** [골] → 구용골

**꽃밭머리** [터] 봉우재 아래에 있는 터로, 봄이면 많은 꽃이 피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공근** [마을] → 공근리

**논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작은 논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안골** [골] 별묘에 있는 골짜기로, 초계(草溪) 정씨들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터고개** [고개] 응달말에 있는 고개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박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박재** [고개] 응달말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말고개** [고개] 절골에 있는 고개로, 말 잔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둔리와 통한다.

**매봉산** [산] 양짓말에 있는 산으로, 매사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명치덕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별명** [마을] → 별묘

**별묘(別廟)** [마을] 공근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고려 말엽의 직제학(直提學) 팔계(八溪) 정전(鄭愓)의 별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미’, ‘별명’이라고도 한다.

**별미** [마을] → 별묘

**봉우재** [고개] 응달말에 있는 고개로, 봉우산 밑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사동(寺洞)** [마을] → 절골

**삼밭골** [골] 별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새이고개** [고개] 응달말에 있는 고개로, 돌터고개와 여우고개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숫을미** [묘] 명치덕골에 있는 묘로, 묘가 자꾸 숫아 올라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골** [골] 절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임자없는 묘가 있다고 한다.

**양짓말** [마을] 공근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고개** [고개] 응달말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이 고개에 여우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우무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공근리 3,4,5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마을] 공근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동이라고도 한다.

**지루고개** [고개] 양짓말에서 가곡리로 넘어 가는 고개로, 고개가 지르마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참새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덕촌리(德村里)

하수백리(下水白里)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적덕(赤德), 거촌(巨村), 회진(懷眞), 와촌(瓦村)을 병합하여 적덕과 와촌의 이름을 따서 덕촌리라 하였다.

**거치랭이** [마을] 덕촌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이 마을의 7가구에서 20세 전에 생원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칠원’이라고도 한다.

**거칠원(巨七員)** [마을] → 거치랭이

**덕촌고개** [고개] → 막은고개

**막골** [골] 호진에 속하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수백리와 접해 있다.

**막은고개** [고개] 오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어느 부자가 살았는데, 이 고개를 막으면 더 큰 부자가 된다고 하여 고개를 막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촌고개’라고도 한다.

**붉은고개** [고개] 덕촌리 마을회관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상장골** [골] 호진에 있는 골짜기로, 맨 위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칠봉산 밑에 있다. ‘상재골’이라고도 한다.

**상재골** [골] → 상장골

**쇠똥골** [골] 호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산골** [골] 상장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호진** [골] 호진에 있는 골짜기로, 호진 안에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와편이 나온다고 한다.

**앞들** [들] 마을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와촌(瓦村)** [마을] → 왜뜯지

**왜뜯지** [마을] 덕촌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기와를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와촌’이라고도 한다.

**품무골** [골] 호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매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호진** [마을] 덕촌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지형이 병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회진이라고도 한다.

**황새머리** [바위] 호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황새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 옆에 있는 노가리나무에 황새가 앉으면 비가 온다고 한다.

**회진(懷眞)** [마을] → 호진

## 도곡리(陶谷里)

예전에 이 마을에서 도자기를 구웠다고 하여 도새울, 도곡(陶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논골, 점말을 병합하여 도곡리라 하였다.

**가무남골** [골] 하우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그 아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고소골** [골] 무쇠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고소골과 작은고소골이 있다.

**공알골** [골] 성재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여자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쾌념이골’이라고도 한다. 이 골과 성재골에 들어가 병이 나면 못 고친다 하여 예전에 어른들은 말렸다고 한다. 큰성바우, 작은성바우를 예전에 ‘자지봉’이라고 하였다.

**논골** [마을] 도곡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논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고개** [고개] 도새울에서 논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논골에서는 이

고개를 ‘도새울고개’라고 한다.

**대사골** [골] 논골에 있는 골짜기로, ①이 골에 있는 박쥐굴에 큰 뱀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대사가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랭이골** [골] 논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새울** [마을] 아랫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도자기를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도새울고개** [고개] 논골에서 도새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도새울에서는 이 고개를 ‘논골고개’라고도 한다.

**돌터고개** [고개] 공근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뿔바우** [바위] 학담2리 성골의 작은 성바위에서 건너다 보이는 바위를 가리키는 데,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차나무골** [골] 무쇠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말채나무골이라고도 한다.

**만산소** [소] 논골과 학담1리 사이에 있는 소(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말무덤이** [무덤] 새터에 있는 돌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장수가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학담2리 성골에 있는 작은성바위에서 큰성바위 사이를 건너 뛰어 다녔는데, 하루는 더 멀리 있는 곳까지 건너 뛰다가 말의 다리가 부러져 죽어서 그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한다.

**말채나무골** [골] → 마차나무골

**매랭이골** [골] 신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못골** [골] 하우고개 올라가며 옆에 있는 골짜기로,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쇠골** [골] 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무쇠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점말 원유근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도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비교적 넓은 평지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우등** [터] 논골에 있는 것으로, 예전에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재** [고개] 하우고개에서 움무골의 호랑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이 고개에서 불상사가 많이 나서 재를 올린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이자리** [논] 아랫말에 있는 논으로,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터] 점말 위에 있는 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

**서낭고개** [고개] 소토골에서 하우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서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골고개** [골] 아랫말에서 학담2리 성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성재골** [골] 학곡2리 성골의 작은성바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쿠리봉** [산] 천지개벽할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소쿠리 하나 얹어 놓은 것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토골** [골] 논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부골** [골] 연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말** [마을] 도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점말 아랫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애골** [골] 논골 성황당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①골이 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전염병이 돌 때 어린이를 묻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여바우골** [골] 매탕이골 위에 골짜기로, 여우가 이 골에 있는 바위에서 새끼를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여우바우골** [골] → 여바우골

**연당골** [골]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용수들** [들] 모내기 철에 가물어서 모내기를 할 수 없을 때, 용수 푸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가뭄이 오면 마을의 부녀자들이 바가지를 하나씩 가지고 ‘용수 푸러 간다’고 하여 눈에 모여서 물싸움을 하면 비가 온다고 한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했다고 한다.

**움무골** [마을] 도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우뚝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상모텡이** [터] 아랫말에 있는 모퉁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막골** [골] 호랑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터** [터] 무쇠골 안에 있는 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마을] 도곡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쾌념이골** [골] 공알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호랑이가 쾌념이라는 여자를 물어다가 잡아 먹지는 않고, 혀로 얼굴을 핥아 죽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우고개** [고개] 움무골에서 창봉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용기장수인 남자와 자리장수인 여자가 이 고개를 넘어 가는데, 자꾸 남자가 치근덕거리서 ‘그럼 하우’하고 여자가 자리를 깔면서 말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

**호랑골** [골] 장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잘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약골** [골] 가무남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일정 때 광산에 쓰는 화약을 이 골에 두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회돌배기** [골] 무쇠점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서 회(灰)를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회를 캐고, 굽는 곳은 신촌리에 있었다고 한다.

## 매곡리(梅谷里)

갈매골, 갈마곡(葛麻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뒤골, 열구정, 요동, 토골을 합하여 상갈마곡리(上葛麻谷里)와 하갈마곡리(下葛麻谷里)로 나뉘었다가 해방 이후 매곡리라 하였다.

**가장골** [골] 산뒤골에서 올라가며 우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어린이가 죽으면 가매장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갈밭둔지** [터] 요골에 있는 터로, 예전에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산** [터] 뒷골에 있는 것으로,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바우골** [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에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루버덩** [터] 동막골에 있는 것으로, 노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추나무골** [골] 독재봉 턱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대추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땀에 있는 골짜기이다.

**독재봉** [산] 청곡리와 경계에 있는 산으로, ①봉우리가 하나라 붙여진 이름이다. ②독(항아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독만큼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에서 조개껍질이 나온다고 한다.

**동막골** [골] 벽학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두다랭이골** [골] 세다랭이 아래 있는 골짜기로, 두 다랭이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도 있다고 한다.

**둔둔요골** [마을] 독재봉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골** [골] 요골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에 매곡저수지가 있다.

**물가나무골** [골] 굴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물가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번개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마을] 요골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첫논다랭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번개바우골** [골] 소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장마 때 이 골에 있는 바위에서 폭포수 같이 물이 흐르는데, 번개가 치면 이 바위에 자주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벽학산** [산] 신촌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빙고재(氷庫재)** [마을] → 핑긱재

**빙고현(氷庫峴)** [마을] → 핑긱재

**산뒤골** [마을] 매곡리 7반에 속하는 마을로, 중간담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호랑바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바우골** [골] 호진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 두 개가 엮혀 있는 것이 마치 섬을 쌓은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다랭이골** [골] 수백리 경계에서 산뒤골로 내려오며 오른쪽으로 있는 첫 골짜기로, 예전에 논 세다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똥골** [골] 가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소를 많이 매어 놓았던 까닭에 소똥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세바우** [골] 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송장골** [골] 동막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6.25 때 좌익들을 처형한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안담** [마을] 핑긱재 안쪽에 있는 마을로,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얼구정** [마을] 안담 뒤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오리나무골** [골] 두다랭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른다.

**요골** [마을] 매곡리 1,2,3,4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요선사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요초(蓼草)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들** [들] 매곡리 건너편에 있는 들로, 이 들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은재등** [고개] 질재골에 있는 고개로, 은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곡1리와 통한다.

**이팔바우골** [골] 산지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팔’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이팔:팔의 한 종류라고 한다.)

**인두봉** [산] 벽학산 밑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일곱다랭이골** [골] 이팔바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일곱 다랭이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요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땀** [마을] 매곡리 5,6반에 속하는 마을로, 매곡리 중앙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회관 뒤가 된다.

**진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재골** [골] 배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독재봉 아래에 있다.

**첫논다랭이골** [골] 일곱다랭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뒤편 초입에서 첫 논이 있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물가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진골** [골] 오리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턱이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진골** [골] 독재봉 질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턱이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골] 경로당 앞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엔 마을이 있었다.

**평곳재** [마을] 매곡리 초입에 있는 마을로, 옛날 요선사라는 절이 있을 때 중들이 쓰던 빙고(氷庫)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빙고재’, ‘빙고현’이라고도 한다.

**호랑바우골** [골] 턱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새끼를 친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진** [골] 소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호국(중국) 놈들이 이 골에 진을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촌리와 통한다.

**흔터골** [마을] 매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땅이 질었다고 한다. ‘흔터구렁이’, ‘홍터골’이라고도 한다.

**흔터구렁이** [마을] → 흔터골

**흔터골** [마을] 흔터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도 이 마을에 집을 짓고 살면 살림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부창리(富蒼里)

토골(土洞)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토골 또는 하토동(下土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셋말, 삼군리, 용바우, 배기벌을 병합하여 하토동리(下土洞里)라 하였다가, 그 후에 백이벌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어 부자마을이 되었다고 하여 부창이라 하였다.

**가래울**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가래울과 아랫가래울이 있다.

**가재골** [골] 골짜기의 형상이 가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 중에 간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공자무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선비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관심산(觀尋山)** [산] 안삼군리에 있는 산으로, 임진왜란 때 관군과 의병이 왜군의 동향을 살피며 훈련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기리목골** [골] 용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꿀썰매골** [골] ‘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파른 관계로 나무를 해서 내려올 때는 지게를 끌고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명이 함께 내려올 경우는 지게를 끈으로 이어서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지게에 올라앉아서 내려온다고 한다.

**노쟁이**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논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조그만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느릅나무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느릅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늘미**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꿀썰매골’이라고도 한다.

**등글봉** [산] 바깥삼군리에 있는 산으로, 산봉우리가 등글등글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배모퉁이** [터] 횡성 조씨들이 상동리에 있는 사당을 찾아올 때, 이곳 부창리에서 그 사당을 향해 절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안골** [마을] 부창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폭포수가 있다. ‘학골’이라고도 한다.

**배양고개** [고개] → 배웅고개

**배웅고개** [고개] 뱀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손님 배웅을 고개까지 와서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양고개’라고도 한다.

**백이벌** [마을] 부창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들이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이평’이라고도 한다.

**백이평(百二坪)** [마을] → 백이벌

**뱀고개** [고개] 백이벌에서 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웅고개’, ‘배양고개’라고도 한다.

**불탄터** [터] 백이벌에 있는 터로, 예전에 불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병기 닥 앞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못을 메우면 큰 화재가 난다고 한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삐뚜리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꼬불꼬불하여 나무를 지고 내려올 때는 삐딱한 자세로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군리** [마을] 부창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임진왜란 때 관군, 의병군, 왜군 등 3군이 격전을 벌이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삼군리, 바깥삼군리, 새이삼군리가 있다.

**삼밭골** [골] 새이삼군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셋말** [마을] 부창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당둔지** [터] 학골에 있는 터로,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다리바위** [바위] 새이삼군리에 있는 바위로, 소 뒷다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숫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부창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서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은 국유림으로 예전에 영이 내려져야 갈을 꺾을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서나무골** [골] 바깥삼군리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용바위** [마을] 부창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용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마을 앞 냇가에서 큰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눈에 띄어 용바위에 떨어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바위** [바위] 부창리 2반 앞 냇가에 있는 바위로, 용의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목이** [골] 삼배저수지에서 삼군리로 넘어오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응달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부창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골** [골] 안삼군리에 있는 골짜기로, 자세봉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봉** [산] 안삼군리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세 자 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자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정자골과 작은정자골이 있다.

**종잘바위** [바위] 부창리와 삼배리 경계에 있는 바위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 바위를 지나며 “아무도 없겠지” 하며 종잘종잘 걸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직자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청배골** [골] 마을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청배골과 작은청배골이 있다.

**학골** [마을] 부창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 뒤에 있는 산의 모양이 학이 내려 앉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안골’이라고도 한다. ②마을이 처음 개척할 때 이 골에서 학이 세 마리 날아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상고개** [고개] 새이삼군리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로 상여가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창리 본부락과 통한다.

## 삼배리(三培里)

마을에 화주봉, 야곡봉, 만악봉의 세 봉우리가 있으므로 삼배울 또는 삼배(三培)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궁터, 터안, 탑골을 병합하여 삼배리라 하였다.

**갈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은돌고개** [고개] 아랫삼배에서 수백리 검은돌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산** [산] 진등 뒤에 있는 산으로,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궁터** [마을] 삼배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터고개** [고개] 터안에서 수백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박골** [골] 웃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목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멧돼지를 잡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터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며느리골** [골] 쇠경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쇠경골에 사는 소경의 며느리가 살던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경의 며느리가 홀로 되어 시아버지인 소경과 한 집에서 같이 지내기가 어렵게 되자, 옆 골인 며느리골에 살면서 조석으로 찾아가 식사를 차려드렸다고 한다.

**바지가닥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지 가랭이처럼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박석고개** [고개] 아랫삼배에서 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박석(돌비늘)이 많이 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재고개** [고개] 웃삼배에서 부창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방이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뱅이골이라고도 한다.

**뱅이골** [골] → 방이골

**별당지** [터] 아랫삼배에 있는 터로, 양지쪽에 있어 햇볕이 잘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망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집을 짓고 살면 죽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배고개** [고개] 웃삼배에서 갑천면 대관대리 당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삼백고개’라고도 한다.

**삼백고개** [고개] 삼배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고개에 도적이 많아서 300명이 무리를 지어야 넘을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적들이 거쳐했다는 굴이 있고, 짐채만한 바위가 있다고 한다.

**새두봉** [산] 옷삼배 뒤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새 머리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속개**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여러 집이 있었다고 한다.

**쇠경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소경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산** [산] 진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에서 까마귀가 울다가 뒤에 있는 공동산으로 날아가면 3일 이내에 동네에 흉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삼배** [마을] 삼배리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용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삼배** [마을] 삼배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자세봉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봉** [산] 옷삼배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세 자 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삼밭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삼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바우골** [골] 궁터에 있는 골짜기로,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화전을 하다가 굴러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등** [산] 아랫삼배에 있는 앞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 능선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산’이라고도 한다.

**탑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탑이 있던 흔적이 아직도 있다.

**터안** [마을] 궁터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통통바우** [바위] 터안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길가에 튀어 나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품무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품무골과 큰품무골이 있다.

## 상동리(上洞里)



토골 위쪽이 되므로 옷토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첫내, 여내, 어인골, 조촌(趙村), 삼원수(三元帥), 동미를 병합하여 상토동리(上土洞里)라 하다가, 그 후 줄이어 상동리로 고쳤다.

**가는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울** [마을] 상동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골** [골] 상개울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소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노루골** [골] 어영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노루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늘미** [골] 삼원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늘미와 작은늘미가 있다.

**돌부처거리** [마을] 상동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돌부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석불평’이라고도 한다.

**동미(東美)** [마을] 상동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동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미모텡’이라고도 한다.

**동미모텡이** [마을] → 동미

**동글봉** [산] 어영골에 있는 산으로, 산봉우리가 동그렇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들** [들] 동글봉 뒤에 있는 들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박골** [골] 어영골 안에 있는 마지막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먹방골** [골] 첫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홍천과 통한다.

**밤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율곡’이라고도 한다.

**배나무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바우** [바위] 첫내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여러 번 맞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험하다고 한다.

**사시락골** [골] 망박골과 치마주름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삼원수(三元帥)** [마을] 상동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고려 때 원수를 지냈던 조

영인(趙永仁)과 그 의 아들 충(沖), 손자 계순(季珣) 등 삼대를 제향하는 사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사당은 횡성읍 정암리로 옮겨져 있다.

**상개울** [골] 어영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상개울과 웃상개울이 있다.

**서조골** [골] 동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씨와 조씨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석불평(石佛坪)** [마을] → 돌부처거리

**설통골** [골] 늘미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죽골** [골] 수피실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수리바우** [바위] 첫내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수피실** [골] 동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양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안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영골** [마을] 상동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어인동이라고도 한다.

**어인동** [마을] → 어영골

**여내골** [골] 홍천과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로, 냇가에 여우가 떠내려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천’이라고도 한다.

**율곡(栗谷)** [골] → 밤나무골

**장차레골** [골] 늘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골** [골] 삼원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촌(趙村)** [마을] 상동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조씨들의 집성촌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조촌말’이라고도 한다.

**조촌말** [마을] → 조촌

**직매락골** [골] 어영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첫내** [골] 어영골 다음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홍천과 경계를 이룬다. ‘초천’이라고도 한다.

**초천(初川)** [마을] → 첫내

**치마주름** [골] 사시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치마주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천(狐川)** [골] → 여내골

**상창봉리(上蒼峰里)**

본래 홍천군 금물산면(今勿山面 : 남면)의 지역으로, 창봉골 위쪽이 되므로 상창봉(上蒼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주막거리, 지우리골을 병합하여 상창봉리라 하였다. 1973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횡성군 공근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갈비봉** [산] 구물산 자락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곰내미** [골] 지경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로 곰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곰내미와 큰곰내미가 있다.

**구물산** [산] 지오리골 점말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산에 금이 많을 것이라고 전해져 온다. ‘금을산’이라고도 한다.

**금을산** [산] → 구물산

**누릅지기** [골] → 무릅지기

**뒀터골** [골] 소죽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둔덕말** [마을] 상창봉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약간 언덕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뒀골** [골] 작은배당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 [고개] 삼밭골 위에 있는 고개로, 능선이 마당처럼 넓고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릅지기**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무릅지기과 작은무릅지기가 있다. ‘누릅지기’라고도 한다.

**배동산** [산] 배당이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당이** [골] 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로, 천지개벽 때 서원에서 배를 끌고 와 이곳에 배를 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배당리와 작은배당리가 있다.

**빨갱이골짜기** [골] 이십난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빨갱이가 이 골에 숨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기점골** [골] 상창봉리와 창봉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사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나무골** [골] 지오리골 초입에서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큰배당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거리** [마을] 횡성, 양평, 홍천 등 세 곳으로 갈 수 있는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삼마치** [고개] 상창봉리와 홍천군 남면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①고개가 험해서 말을 세 번 갈아타야 넘을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삼(산삼)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된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산삼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죽은골** [골] 사시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소를 매어 놓았는데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루봉** [산] 배동산 옆에 있는 산으로, 시루를 얹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말** [마을] 지오리골 초입에 있는 마을로, 점말에서 볼 때는 아래에 있는 마을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상창봉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골** [골] 지오리골 신창식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여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터골** [골] 이심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원두막골** [골] 무릅지기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달말** [마을] 상창봉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심난골** [골] 입벌 위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못된 이심이 있던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입벌** [골] 마당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초원리 입벌과 통한다.

**점말** [마을] 지오리골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사기점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상창봉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경골** [골] 좁다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오리골** [마을] 상창봉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상창봉에서 15리나 되는 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지오리 입구에서 큰 마을이 있는 곳까지 5리가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지우리골’이라고도 한다.

**지우리골** [마을] → 지오리골

**진평골** [골] 지오리골을 올라가며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는 모른다. 골이 길고 평탄하다고 한다.

**짐장박골** [골] 화성바우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좁다리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산바우골** [골] 마당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화산이 터질 때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성바우골’이라고도 한다.

**화성바우골** [골] → 화산바우골

## 수백리(水白里)

예부터 무리, 물이라고 불려 왔는데, 높은 산 위에서 보면 낮에는 물이 희게 보이고, 밤에는 모래가 희게 보인다고 하여 수백(水白)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검은돌, 대성, 버덩말, 영당을 병합하여 상수백리(上水白里)와 하수백리(下水白里)로 하였다가, 그 후에 합하여 수백리로 하였다.

**검은돌** [마을] → 검은돌

**검은돌** [마을] 수백리 7,8반에 속하는 마을로, 검은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 선바우가 있는데 돌맹이로 두두리면 소리가 나며, 돌을 던져서 봉우리에 다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검은돌’, ‘흑석동’이라고도 한다.

**고사리골** [골] 대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리장골** [골] 고려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고려장 했던 흔적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구리장골’이라고도 한다.

**구리장골** [골] → 고리장골

**개근네** [마을] 수백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천지개벽 때 물이 많아 사람이 건너 갈 수 없을 때 북덕이에서 개가 건너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작은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산** [마을] → 대성

**대상** [마을] → 대성

**대성** [마을] 수백리 5,6반에 속하는 마을로, 높은 지대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상’, ‘대산’이라고도 한다.

**덕촌고개** [고개] 수백리에서 덕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돌고개** [고개] 검은돌에서 삼배리 터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산** [산] 천지개벽 때 북덕이에서 보니 산이 매만큼 보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육이오 때 이곳에서 아군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

**버덩말** [마을] 수백리 2,3반에 속하는 마을로, 넓은 평지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이라고도 한다.

**북덕이** [마을] → 북덕이

**북덕이** [마을] 수백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흙빛이 붉으며 ‘북덕이’라고도 한다.

**사기장골** [골] 검은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하얀 차돌이 나온다고 한다.

**산뒹골** [골] 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깊다고 한다. 매곡리와 통한다.

**승지골** [골] 고리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시든불이** [골] 북덕이와 대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안양골** [골] 텃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 이 골에서 나온 부처를 수백초등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영당(影堂)** [마을] 수백리 중간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영당(影堂)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옥루봉** [산] 대성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전설에 의하면, 옥루봉에서 말을 타고 내려와 전쟁놀이를 하다가 영당이 있는 동산을 돌아서 갔다고 한다.

**치골** [골] 승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가파르므로 치올라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곡리와 통한다.

**칠봉산** [산] 원래 봉우리가 여덟 개였으나 천지개벽 때 봉우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텃골** [골] 대상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평촌(坪村)** [마을] → 버덩말

**흑석동(黑石洞)** [마을] → 검은돌

## 신촌리(新村里)

본래 학곡리의 일부였으나 1973년 행정관할구역 재조정으로 학곡리가 횡성읍

에 편입되면서, 새말 다리골을 병합하여 신촌리라 하였다.

**가운데다리골** [골] 아랫다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가운데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마을] 신촌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띠밭골** [골] 마차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도롱이 등을 만들던 띠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차나무골** [골] 오작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벼락산** [산] 벽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어떤 농부가 이산 밑에 소를 매어 놓고 저녁에 소를 데리러 갔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벽학산** [산] 학담리 경계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에서 학이 날아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산’이라고도 한다.

**새말** [마을] 신촌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옛날 주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와서 황무지를 개척하여 이룩한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다리골** [골] 다리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작골** [골] 새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움무골** [골] 가운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지고개** [고개] 신촌리에서 학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지들** [들] 다리골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띠밭골** [골]-띠밭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 화전을 할 때 골 전체가 밟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뿔대봉** [산] 마차나무골 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뿔대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때 이곳의 지세가 좋아 장수가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쇠말뚝을 박아혈을 끊었다고 한다.

## 어둔리(於屯里)

①마을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어둡다는 뜻으로 어둔리라 하였다. ②홍천에서 횡성으로 오는 길목이므로 역졸들이 주둔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밤골, 세개골, 셋말, 점말, 주막거리, 양짓말을 병합하여 어둔리라 하였다.

**골이흙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늘미** [골] 부창리와 통하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뿔바우** [바위] 세개골 입구에 있는 두 개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장수가 3m 가량 떨어져 있는 바위 사이를 건너 뛰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수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

**마당바우** [바위] 세개골에 있는 바위로, 70평 정도의 넓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고개** [고개] 주막거리에서 공근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밤골** [골] 세개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득치** [골] 작은어둔리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횡성비득치’라고도 한다.

**셋말** [마을] 어둔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점말과 양짓말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개곡(細開谷)** [골] → 세개골

**세개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가늘고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개골’, ‘세개곡’이라고도 한다.

**소삼마치(小三馬峙)** [고개] → 작은삼마치

**송낙봉** [산] 상동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이 산 높은 곳에서 여승(女僧)이 쓰는 송라(松羅)가 소나무에 많이 기생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개골** [골] → 세개골

**양짓말** [마을] 어둔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점말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웃어둔리** [골] 세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어둔리 위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삼마치** [고개] 홍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상창봉리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삼마치보다 고개가 낮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삼마치’라고도 한다.



**작은어둔리** [골] 썸말 뒤에 있는 골짜기로, 어둔리골에 비해 골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마을] 어둔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무쇠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50년대 초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쇠는 홍천군 두촌면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주막거리** [마을] 어둔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사는골** [골] 썸말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중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춧대바우** [바위] 양짓말에 있는 바위로, 춧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고개** [고개] 점말에서 행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형성비득치** [골] → 비득치

## 오산리(梧山里)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미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암, 대방, 동막골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하였다. 하갈매골이라고도 하였다.

**개나골** [골] 바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구용소** [소] 솟다배기 앞 내에 있는 소(沼)로, 마을이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으로 소가 이 소(沼)에서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뒤고개는 소 등에 해당되고, 매곡리에 있는 쇠똥골은 소가 똥을 누는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넘어땀** [마을] 오산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1반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회관 뒤쪽에 웅기점이 있었는데, 1950년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1반을 지칭할 때도 ‘넘어땀’이라고 한다.

**대방아래** [마을] 오산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우** [마을] → 대외

**대외** [마을] 오산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우’라고도 한다.

**독골** [골] 선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동박골** [마을] 오산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뒤룬고개** [고개] 오미에서 학곡리 뒤룬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미우내** [고개] 불당골 옆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바른골** [골] 오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르게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동박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르게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불당골** [골] 승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서낭댕이** [터] 오미에 있는 것으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덕골** [골] 동박골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뿔고개** [고개] → 솔뿔고개

**솔뿔고개** [고개] 솟다배기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뿔고개’라고도 한다.

**솟다배기** [마을] 오산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 지형이 소 다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솟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오재** [고개] 동박골에 있는 고개로, 오미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빠진골** [골] 작장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묘에 구멍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개골** [골] 동박골 바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하얀 개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승지골** [골] 행장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앞산** [산] 오미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엷힌바위** [바위] 뒤룬고개에 있는 바위로, 바위에 바위가 엷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미** [마을] 오산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움무골** [골] 넘어땀 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잉애재** [고개] 뒤룬고개 옆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뒤룬과 통한다.

**작장골** [골] 배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골** [골] 오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피접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진골** [골] 동박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똑바로 가다가 턱이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접시골** [골] 넘어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전염병이 돌 때 이 곳에 환자를 옮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합수** [내] 오미에 있는 것으로, 갑천면에서 내려오는 계천(桂川)물과 학담리쪽에서 내려오는 금계천(錦溪川)물이 합수가 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장무골** [골] 개나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흰바우** [바위] 배나무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흰색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창봉리(蒼峰里)

창봉골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창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말, 평골, 부엉바우, 주막거리, 하우고개를 병합하여 하창봉리(下蒼峰里)라 하다가, 그 후에 줄이어 창봉리로 고쳤다. 조선시대 때 창봉역(蒼峰驛)이 있었다.

**가골** [골] 사기점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점골 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갈밭양지** [터] 평골에 있는 터로, 양지쪽에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건네** [마을] 창봉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바우’, ‘개근네’라고도 한다.

**개근네** [마을] → 개건네

**골안** [마을] 주막거리 뒤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 깊숙이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거리** [마을] 주막거리 망재 앞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창봉역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관터’라고도 한다.

**관터** [터] → 관거리

**구덩이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구덩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비개터골** [골] 사기점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평골** [마을] 창봉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평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부

자(父子)가 산에 갔다가 표시를 해 놓고 오려고 했는데, 표시할 것이 없어서 썩을 잡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썩골과 작은썩골이 있다.

**너러실** [마을] 사기점골 앞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느다리** [마을] 주막거리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마을 앞에 있는 작은 개울의 다리를 관(널)으로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늘다리’라고도 한다.

**늘다리** [마을] → 느다리

**늘으치고개** [고개] 창봉리에서 상창봉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락골** [골] → 다래골

**다래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이라고도 한다.

**담바우** [골] 주막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산골** [골] 집뒤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장골** [골] 썩골 갈밭양지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돼지바우** [바위] 헛가마골 안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멧돼지 사냥을 할 때 이 바위로 물고가면 바위에서 돼지가 떨어져 죽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뽕바우** [바위] 사기점골에 있는 바위로, 어느 장수가 자기 부인을 이 바위에서 떨어트리고 자신이 뛰어 내려서 부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재** [산] 주막거리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창봉역에 종사하는 관리와 관노들이 국상이 나면 이 산에 올라가 궁궐을 향해 재를 올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창봉역에 종사하던 역졸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박재** [고개] 왕박재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창봉리에서 행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예전에 창봉역이 있을 때 역졸들이 망을 보던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정고개’, ‘우무개고개’라고도 한다.

**물푸레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물푸레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쥐골** [골] 밤나무골에 있는 골로, 박쥐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사기점골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밤나무골과 큰밤나무골이 있다.

**복희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부영바우** [마을] 개건네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부영이가 이 마을에 있는

바위에서 새끼를 많이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채맞은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불기재** [고개] 안말에 있는 것인데, 창봉리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불같이 뜨겁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둔리와 통한다.

**사기점골** [골] 꿩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사기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밭에서 사기 조각들이 나온다고 한다.

**삼밭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재삼을 많이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재삼:예전에 화전을 할 때 나무를 쌓아 태워서 생긴 재로 밭에 뿌리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 잘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재로 거름을 하여 삼을 심는 방법을 재삼이라고 한다.)

**상투바우** [바위] 개건네 길 옆에 있는 바위로, 상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두봉** [산] 오음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정상에 있던 새풀(억새)만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석이바우골** [골] 담바우 안에 있는 골짜기로, 석이버섯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골잡이** [골] 너러실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골 세개가 모여서 한 골을 이루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씻가마골** [골] 개건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철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승지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승지골과 큰승지골이 있다.

**시루봉** [산] 개건네 여내골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시루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골** [골] 사기점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쑥갓밭** [마을] 주막거리 아래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버덩** [마을] 창봉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주막거리 아래쪽에 있으며 들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창봉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내골** [골] 개건네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영산재** [고개] 골안과 불기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오리골** [골] 아랫버덩에 있는 골짜기로, 청둥오리들이 많이 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오리골과 큰오리골이 있다.

**오음산(五音山)** [산] 새두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여우, 까마귀, 샅쟁이, 산돼지, 꿩 등 다섯 짐승이 각각 한 골씩 맡아 살면서 다섯가지 소리를 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왕박재** [고개] → 행정고개

**육개골** [골] 주막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약수가 나오는데, 옷물이라고 한다. 큰육개골과 작은육개골이 있다.

**우무개고개** [고개] 행정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승도골** [골] 꿩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골** [골] 사기점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창봉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계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지계처럼 골이 갈라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경골** [골] 너러실에 있는 골짜기로, 상창봉리와 경계를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서덕** [터] 지계골에 있는 것으로, 서덕(돌)이 길게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집뒤골** [골] 담바우 안에 있는 골짜기로, 집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품무골** [골] 아랫버덩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하우고개** [고개] 개건네에서 도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행정고개** [고개] 창봉리에서 행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망박재’, ‘왕박재’, ‘우무개고개’라고도 한다.

**회가마골** [골] 개건네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회(灰)를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 청곡리(淸谷里)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금계천(錦溪川)의 물이 맑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비소, 말구리를 병합하여 청곡리라 하였다.

### [청곡1리]

**말구리** [마을] 청곡리 중앙에 있는 마을로, 말구리고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내터골** [골] 작은시동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시동** [골] → 큰시동

**은재고개** [고개] 은재들에 있는 고개로, 매곡리와 통한다.

**은재들** [들] 은재들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은재들** [마을] 작은시동 왼쪽으로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시동** [마을] 큰시동 옆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재넘애골** [골] 작은시동에 있는 골짜기로, 산 너머에 있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백리와 통한다.

**정낭골** [골] 작은시동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시동** [골] 청곡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시동’이라고도 한다.

## [청곡2리]

**곡소(曲沼)** [마을] → 구비소

**구비소** [마을] 마을 앞을 굽이져 흐르는 물에 큰 소(沼)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소(沼)는 다 메워지고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한다. ‘곡소’라고도 한다.

**독재봉** [산] 매곡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봉우리가 외로이 홀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구리고개** [고개] 말구리에서 학담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가파르고 경사가 심해 예전에 말이 굴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83년에 지금과 같이 우회도로가 생겨 이 고개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전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밀려 삼군리에 모인 관군과 의병에게 마을사람들이 밤이면 말에 군량과 군기를 싣고 이들에게 날라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왜군에게 발각되어 서두르다가 이 고개에서 말이 굴러 죽었다고 한다.

**무쇠말재** [고개] 뒤산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이 고개에 무쇠로 만든 말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기로 만든 말도 있었다고 한다.

**뒤용골** [골] 진다무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구유처럼 생겼다고 한다.

**윤봉골** [골] 말구리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다. 도곡리와 통한다고 한다.

**자작둔지** [마을] 예전에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다무리** [마을] 예전에 마을에 돌이 많아 그 돌로 담을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 [바위] 독재봉에 있는 바위로,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초원리(草院里)

조선시대 때 새원이라는 원(院)이 있었으므로 새원 또는 초원(草院)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입벌, 새터, 넓은밭, 상화대를 병합하여 상화대와 새원의 이름을 따서 상초원리(上草院里)라 하다가, 그 후에 줄이어 초원리로 고쳤다.

### [초원1리]

**가는골** [골] 지우리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가늘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갱깽골** [골] 불탄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광전(廣田)** [마을] → 너븐밭

**고사리골** [골] 북개뫾산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웁소** [소] 입벌에 있는 소(沼)로,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소에서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 소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큰 소낙비가 온다고 한다.

**너븐밭** [마을] 초원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에 넓은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 마을을 개척한 분의 이름 중 한 글자인 ‘廣’자를 따서 붙여진 것이다. ‘광전’이라고도 한다.

**다리골** [골] 너븐밭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다리가 아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담2리와 통한다.

**달롱고개** [고개] 너븐밭에서 학담리 성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달롱 넘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밭구멍이** [골] 우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달이 이 골에 먼저 비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잡아박골** [골] 덕심이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 [고개] 노븐밭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학담2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덕심이** [골] 못다리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재** [골] 만두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만두골** [골] 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만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망테골** [골] 밤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①매망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매 사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면골** [골] 승마넘은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마을에서 멀리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면골과 작은면골이 있다. 골 초입에 폭포수가 있으며, 부정한 사람이 이 골에 가면 안 된다고 한다.

**못다리골** [골] 입벌 응달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 안에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갈골** [골] 입벌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윈터와 통한다. 물갈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골** [골] 치매바우 옆에 있는 골짜기로,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성마나무개 옆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두고개** [고개] 윈터 공근초등학교 광덕분교 뒤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이 고개에는 도적들이 많아서 102명이 모여야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담2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뱀골** [골] 사기점터 옆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밭** [골] 새비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벌통골** [골] 매망테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벌통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벌통골과 큰벌통골이 있다.

**복개뿔산** [산] 새밀골 위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불탄골** [골] 너븐밭 마을 맞은 편에서 윈터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불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기점터** [터] 가는 골 옆에 있는 터로, 예전에 사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대기** [골] 심배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새초라는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밀골** [골] 신촌리 삼거리에서 너븐밭을 들어서며 왼쪽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새비질골** [골] 물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마나무개** [골] 대잡아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쇠장골** [골] 갯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소를 많이 묶어 놓고 풀을 먹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숲** [터] 초원1리 3반에 있는 터로, 아름답리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숲밖** [마을] 초원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숲 밖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숲안** [마을] 초원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숲 안에 있는 마을 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승마넘은골** [골] 뺨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배나무골** [골] 별통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신배나무골과 큰신배나무골이 있다.

**앞산** [산] 너븐밭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오리골** [골] 원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우묵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터** [마을] 초원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원(院)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원님이 지나가다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터뒷산** [산] 원터에 있는 공근초등학교 광덕분교 뒷산을 가리킨다.

**입벌** [마을] 초원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입벌과 바깥입벌이 있다.

**지르매기** [골] 덕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질러 가는 길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우리재** [고개] 새대기 옆에 있는 고개로, 상창봉리 지오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덕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오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원면과 통한다.

**치매바우** [골] 뺨밭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치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칼등바우** [바위] 만두골 안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장수가 이곳에서 훈련을 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수리봉** [산] 가는골 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태봉산** [산] 쇠장골 위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호랑바위** [바위] 북개뒷산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호랑이가 이 바위에서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초원2리]

**검두고개** [고개] 새원 앞에 있는 고개로, 검두(서원면 금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마을] 초원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 안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너래바위** [바위] 뽕바위 옆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릉나무골** [골] 상아터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뒤릉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릉나무 나뭇잎과 줄기를 넣고 삶은 물에 무좀 부위를 담그면 없어진다고 한다.

**뒷골** [골] 보래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새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뽕바위** [바위] 상화터 뒤에 있는 바위로, 장수가 뽕바위에서 약 300m 떨어진 너래바위에 뛰어 내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애골** [골] 새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을 간이 상수도가 있다고 한다.

**범든골** [골] 새원 농업비료공장 뒤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광산을 시작할 때 개를 잡아 치성을 드렸으며, 금을 많이 켜다고 한다.

**보래골** [골] 산지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보리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보리골’이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보자의 의견도 있다.

**산지당골** [골] 상화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시던 큰 소나무가 있었으나 몇 년 전에 베었다고 한다. 마을 서낭 제사를 하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산지당 제사를 하였으나, 산지당이 없어진 이후는 서낭당 제사만 지낸다고 한다. 무쇠점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간이 상수도가 있다.

**상화터** [마을] 초원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현

재 마을 농악대 기에도 상화대(上花臺)라고 써 있다고 한다. 무쇠점이 있었다. '상화대'라고도 한다.

**상화터고개** [고개] 초원2리 상화터에서 서원면 유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유현리에서는 새원고개라고 한다.

**상화터서낭당** [당] 상아터에 있는 서낭으로 무쇠말이 있다.

**상화대(上花臺)** [마을] → 상화터

**새원** [마을] 초원2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새원이라는 원(院)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안원(弘安院)이라 하였다. '신원'이라고도 한다.

**새원고개** [고개] → 상화터고개

**새터** [마을] 초원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대'라고도 한다.

**소물은골** [골] 작은진선이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쇠경논빠진골** [골] 새원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대(新臺)** [마을] → 새터

**신원(新院)** [마을] → 새원

**앞산** [산] 새터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우무골** [골] 새원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 우무골과 작은우무골이 있다.

**주막거리** [터] 새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선이** [골] 새원 앞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진선이와 작은진선이가 있다. 서원면 금대리와 통한다.

**탑** [탑] 상아터에 있는 돌탑을 가리키는 것으로, 초원1리 너븐밭에 있는 태봉산이 배형국이라, 그 배를 묶어 놓기 위하여 이곳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두 기가 있다.

## **학담리(鶴潭里)**

마을에 학이 놀던 못이 있으므로 학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초당(草塘), 성곡(城谷), 셋말, 호논, 거릿말, 노루미를 병합하여 학담리라

하였다.

### [학담1리]

**거릿말** [마을] 학담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길 가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거리와 아랫거리가 있다.

**논골** [골] 초당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늑박골** [골] 셋말과 안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말구리고개** [고개] 쌍다리에 있는 골짜기로, 말이 굴러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곡리와 통한다.

**붉은산** [산] 공근면사무소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태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보** [보] 학담1리 마을 앞 내에 있는 보로, 새로 만든 것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다.

**새시골** [골] 초당 피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샘말** [마을] 학담1리 3반에 있는 마을로, ①마을에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초당과 학담2리 호논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셋말’이라고도 한다.

**셋말** [마을] → 샘말

**쌍다리** [마을] 학담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두 개의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땀** [마을] 초당의 일부로, 안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안말** [마을] 학담1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연당골** [골] 초당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점말** [터] 현재 공근중학교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용기를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땀** [마을] 공근중학교 뒤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당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당** [마을] 학담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초계(草溪) 정씨가 낙향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텡이’라고도 한다.

**초텡이** [마을] → 초당

**품무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피난골** [골] 초당에 있는 골짜기로, 임진왜란 때 이 골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곡리와 통한다.

**횃가마골** [골] 초당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회(灰)를 구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학담2리]

**가성바우** [바위] 성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길 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산** [터] 성골에서 도곡리 넘어가는 곳에 있는 터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시매기** [골] 물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 길이가 90리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성산** [산] 호논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노루미** [마을] 학담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지형이 노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장골** [골] 호논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리골** [골] 호논 금성산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초원1리와 통한다.

**덕고개** [고개] 호원에서 초원1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장골** [골] 호논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골** [골] 성골 권기성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애골** [골] 호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성곡(城谷)** [마을] → 성골

**성골** [마을] 학담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산이 성처럼 마을을 싸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성곡’이라고도 한다.

**시장골** [골] 호논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래학담** [마을] 학담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학담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성골** [골] 큰성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큰성골에 비해 골이 작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장심이골** [골] 노루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찌골** [골]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매박골** [골] 작은성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치마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큰성골** [골] 성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성바우** [바위] 큰골 옆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논** [마을] 학담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홍원이라는 원(院)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원’, ‘홍원’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안원(弘安院)이라 하였다.

**호원** [마을] → 호논

**홍원(弘院)** [마을] → 호논

## 행정리(杏亭里)

① 예전에 마을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예전에 살구나무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셋말, 참샘골을 병합하여 행정리라 하였다.

**감투봉** [산] 셋말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물에 잠기고 감투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너머행정** [마을] 행정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셋말 너머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너머행정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막바우** [골] 사시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명매기가 집을 짓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기재**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다 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나무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셋말** [마을] 행정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너머행정과 참샘골 사이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갈바우** [바위] 사시나무골에 있는 바위로, 그 형상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

는 모습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연못에 오리들이 많이 날아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개고개** [고개] 행정리에서 창봉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줄밤나무** [산] 너머행정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줄지어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넘애** [터] 너머행정에 있는 터로, 집 너머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참새골** [골] → 참샘골

**참샘골** [골] 너머행정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새골’이라고도 한다.

**청룡들** [들] → 청룡번들

**청룡번들** [들] 너머행정에 있는 들로 지형이 청룡에 해당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청룡들이라고도 한다.

**팽나무재** [고개] 셋말에 있는 고개로, 팽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제보자]

(김봉기, 남, 84세, 강릉 태생으로 45년 전에 가곡리로 이주)

(김용훈, 남, 61세, 가곡리 토박이)

(김영락, 남, 74세, 안흥 태생으로 65년 전에 가곡리로 이주)

(김성수, 남, 60세, 가곡리 토박이)

(안봉희, 남, 73세, 공근리 토박이)

(변춘례, 여, 78세, 홍천군 태생으로 19세에 공근리로 시집 옴)

(민계호, 여, 78세, 오산리 태생으로 16세에 덕촌리로 시집 옴)

(김병화, 남, 70세, 덕촌리 토박이)

(고한석, 남, 68세, 덕촌리 태생으로 10년 전에 수백리로 이주)

(홍순석, 남, 72세, 도곡리 토박이)

(원유근, 남, 46세, 도곡리 토박이)

(정병헌, 남, 60세, 도곡리 토박이)

(장태춘, 남, 62세, 원주 태생으로 36년 전에 매곡리로 이주)



(원복규, 남, 64세, 매곡리 토박이)  
(심백래, 남, 68세, 매곡리 토박이)  
(서상철, 남, 73세, 홍천 태생으로 40년 전에 매곡리로 이주)  
(신순남, 여, 76세, 매곡리 토박이)  
(유정수, 남, 68세, 부창리 토박이)  
(유경희, 남, 64세, 부창리 토박이)  
(이하섭, 남, 65세, 부창리 토박이)  
(정순만, 남, 52세, 부창리 토박이)  
(원성규, 남, 66세, 삼배리 토박이)  
(원길순, 남, 71세, 삼배리 토박이)  
(유경수, 남, 70세, 상동리 토박이)  
(유돈수, 남, 77세, 상동리 토박이)  
(이우철, 남, 73세, 갑천 태생으로 9세에 상동리로 이주)  
(송종규, 남, 68세, 춘천 태생으로 30년 전에 상창봉리로 이주)  
(손순선, 여, 80세, 상창봉리 토박이)  
(신창식, 남, 58세, 상창봉리 토박이)  
(김영만, 남, 71세, 수백리 토박이)  
(임연태, 남, 76세, 수백리 토박이)  
(장경호, 남, 64세, 수백리 토박이)  
(김대진, 남, 71세, 청일 태생으로 7년 전에 수백리로 이주)  
(이대운, 남, 75세, 우천 태생으로 7세에 신촌리로 이주)  
(이시운, 남, 71세, 우천 태생으로 6세에 신촌리로 이주)  
(정양철, 여, 45세, 갑천 태생으로 17세에 어둔리로 시집 옴)  
(태금만, 남, 73세, 어둔리 토박이)  
(이백선, 남, 59세, 오산리 토박이)  
(조이환, 남, 71세, 오산리 토박이)  
(송병시, 남, 70세, 오산리 토박이)  
(이명숙, 여, 59세, 상창봉리 태생으로 23세에 창봉리로 시집 옴)  
(이창수, 남, 73세, 창봉리 토박이)  
(이종문, 남, 50세, 청곡1리 토박이)  
(한오식, 남, 66세, 청곡2리 토박이)  
(김태헌, 남, 89세, 초원1리 토박이)  
(정병선, 남, 64세, 초원1리 토박이)  
(허필원, 남, 77세, 초원1리 토박이)

(최양현, 남, 67세, 초원2리 토박이)  
(이인영, 남, 80세, 학담1리 토박이)  
(이상찬, 남, 70세, 학담1리 토박이)  
(김종환, 남, 64세, 학담1리 토박이)  
(황충원, 남, 59세, 충주 태생으로 30년 전에 학담1리로 이주)  
(권기성, 남, 72세, 학담2리 토박이)  
(김영세, 남, 67세, 학담2리 토박이)  
(권병길, 남, 70세, 행정리 토박이)